

KOREA HOUSE  
Korean Ceramic Art :  
Stories of Near and Far Away

MAISON DE LA CORÉE  
La céramique coréenne :  
Histoires de loin et de près

2024 7.25. — 2024. 8.11.

Salle 201, Maison de la Chimie  
28 Rue Saint-Dominique, 75007 Paris



인류의 이야기꾼, 도자

도자는 인류의 역사와 맥을 같이하는 일상의 도구이자 창조적 예술행위로서 우리 삶 가까이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도자유물들은 당대의 시대정신과 문화적 취향을 가능하는 단서들을 제공할 뿐 아니라 인류의 변천과 역사의 중요한 물증이 되기도 합니다. 서로 다른 세계와 문화를 잇는 매개자이자 인류의 이야기꾼인 '도자'는 그 천년의 흐름 속에서 개인과 집단의 삶 뿐 아니라 여러 문화와 지역의 사람들이 교류한 흔적에 대해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전 세계인의 축제인 2024 파리하계올림픽대회를 기념하여 열리는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_한국도에》는 이야기꾼 '도자'가 들려주는 '지금'과 '우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한국도에 속 세계, 세계 속 한국도에

《멀고도 가까운 이야기\_한국도에》는 오늘날 세계가 마주한 급격한 사회 변화 속 범지구적 주제인 '자연과 인간의 공존', '공동체와 다양성', '화합과 소통' 등에 대한 흥미로운 논점을 제공하는 한국도에 작품들을 통해 세계인의 화합의 장으로서의 올림픽의 의미를 되새기고자 합니다. 전시에 소개되는 다섯 명의 한국도예가의 작품들은 한국 도자예술이 가진 풍부한 전통적 맥락과 다양한 표현양식을 통해 사회-문화적 현상과 이를 둘러싼 이야기들을 다채로운 조형언어로 펼쳐 보입니다. 이번 전시가 작품들이 전하는 멀고도 가까운 우리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회이자 동시대 한국도예를 새롭게 감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YOON HOJUN  
윤호준 b.1977



**도탈출 칠보 투각 향로**  
2021 | 39x32x42cm  
청자토, 조형토 | 환원소성 1250°C, 물레성형, 손성형

윤호준의 작품에서 오래된 청자와 백자 유물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흥미로운 이야기들의 주인공이 된다. 작가는 유물 원형의 형태와 무늬, 기법과 내용을 작가만의 상상력으로 새롭게 각색해 관람객에게 원작과는 또 다른 즐거움을 선사한다.

<도탈출 칠보 투각 향로>는 국보 제95호로 지정된 청자 투각칠보문뚜껑 향로(고려 12세기, 높이 15.3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를 차용(parody)한 작품이다. 천 년에 가까운 시간동안 향로를 받치고 있던 토기들을 대신하여 세 명의 '아(我)\*'가 토기를 입고 향로를 떠받치다 두 명은 도망가고 한 명만 힘겹게 향로를 짊어지고 있다. 탈출한 토기는 향로에 들어간 '아'를 자신들처럼 한 인간을 대표한다 생각하여 응징하고 도망가려 한다. <운학문 회전 유희 매병>은 국보 제68호 청자 상감운학문 매병(고려 12세기, 높이 42.1cm, 간송미술관 소장)을 차용했다. 매병 기면의 8개 원형 장 안에 멈춰있는 학들이 병을 회전 시 순서에 맞게 날개 짓하여 그 안에서 살아 움직이고, 학의 날개를 달고 있는 '아'는 회전하는 매병에 앉아 움직임을 즐기고 있다. 조선시대 유물인 백자 청화 탈봉황무늬 호(조선 18세기, 높이 35.5cm, 서울공예박물관 소장)가 모티프로 한 <백자 청화 탈봉황무늬 호>는 이번 전시를 위한 신작이다. 항아리에 갇혀있던 두 마리의 봉황이 항아리에서 탈출하여 자유를 찾아 가려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한 마리는 몸의 전부가 나왔지만 한 마리는 꼬리까지는 가지도 나오지 못해 남겨진 꼬리를 가져가기 위해 두 마리의 봉황이 힘을 합쳐 항아리를 들어 올리고 있다. 봉황 두 마리가 한 뜻, 한 방향으로 날아오르는 이 작품은 인종, 정치, 종교의 이념의 경계를 넘어선 세계인의 화합과 평화의 장인 파리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 어린 아이의 모습을 한 '아(我)'는 작가의 마성숙한 자아를 대변하는 페르소나이다. '아'는 세상과 소통할 때 다소 내성적인 성격의 작가와는 달리 세상과 사물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이 많은 존재이다. 혼자서 여행을 다녀오기도 하고 사람들과 만나 인사를 건네는 등 적극적으로 외부와 소통하며 사람들과 교류하려 한다.

**운학문 회전 유희 매병**  
2024 | 30x30x55.5cm  
청자토, 조형토 | 환원소성 1,250°C, 물레성형, 손성형

**백자 청화 탈봉황무늬 호**  
2024 | 60x60x38cm  
백자토 | 환원소성 1,250°C, 물레성형, 손성형

MAENG WOOKJAE  
맹욱재 b.1976



**비밀의 숲**  
2015-2019 | 170x170x240cm | 실크소지, 백자토, 수금, 종이, 철사, 나무  
산화소성 1240°C, 슬립캐스팅, 손성형 | 한국도자재단 소장

맹욱재는 인간과 다른 생명체 사이의 관계성, 도시와 자연의 공존과 균형에 대한 다양한 관점을 조명하는 작품을 통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한 환경문제에 대한 현대인들의 관심을 촉구한다. 작가는 백자를 주된 매체로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접할 수 있는 동물과 식물의 형상을 조각으로 직접적이고 매우 세밀하게 묘사한다. 관객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 백색의 형상들은 멀리서 바라봤을 때는 평화롭고 이상적으로 자연을 그려내는 듯 보인다. 그러나 가까이에서 관찰하면 뾰족한 개체들이 엉켜있는 기형적인 풍경임을 알 수 있다. 백색소음과 자연의 소리가 혼합된 음향과 인공의 빛이 조화를 이룬 이 신비롭고도 기괴한 풍경은 관객을 극도로 몰입하게 하고 한층 더 입체적으로 작품의 메시지 전달을 돕는다. 석고로 주형을 만들고 그 안에 흙물을 부어 형태를 만드는 슬립캐스팅을 주된 기법으로 오늘날 인간이 동물을 복제하듯 작가는 동물 형상의 도자 작품을 만든다. 작품의 의도와 깊이 맞닿은 제작 방법 전반과 한 치에 오차도 없이 완성도 높은 결과물은 사회와 환경에 대한 치열한 작가적 의식과 고민을 짐작하게 한다.

<비밀의 숲>은 지구의 환경위기와 파괴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생명체들이 당면한 현실에 대해 사유하게 하는 작품이다. 관객은 가려진 숲 속을 조심스럽게 엿보며 인간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 위기에 처한 생태계의 참혹한 광경과 마주하게 된다. 언뜻 평화로워 보이는 하얀 숲에는 날개 달린 개구리, 머리가 두 개인 다람쥐와 벌, 귀와 구멍이 모양의 풀 등 기형적인 존재들이 어울려 살아가고 있다. 작품이 제공하는 병들고 변형된 환경에 대한 단상들은 관람객들에게 인간과 자연의 공존의 중요성을 상기시키며 환경위기 대응 인식을 고취하고 있다.

SIM DAEUN  
심다운 b.1996



**인간의 암석**  
2023-2024 | 가변 설치  
혼합점토, 페도자 | 산화소성 1222°C, 손성형

심다운의 작품에는 도자 예술 창작의 과정에서 수반되는 질료의 물성 변화와 물질의 지구적 순환에 대한 작가적 고민과 의식이 담긴다. 거대한 암석이 긴 시간 풍화되며 흙이 되고, 사람들은 그 흙을 물과 섞고 구워 도자기, '인공의 암석'을 만들어냈다. '인공의 암석'은 흙으로 돌아갈도 영원히 불과 다른 물질이다. 작가는 한때는 인간의 편리한 생활을 도왔으나 무분별한 대량 생산으로 인해 일회용품 소비되고 버려진 도자기를 점토에 섞어 작품을 제작한다.

<인간의 암석>은 도시 곳곳에서 채집한 페도자기를 재료로 한 9점의 항아리로 구성된 작품으로 자원 순환의 가치와 도자 예술의 지속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여러 종류의 소지(흙)와 페도자 가루를 섞은 점토를 사용해 손으로 빚어 항아리를 만들고 유약을 바르지 않은 채 소성하여 자연 광물의 다양한 색감과 거친 표면을 표현하였다. 작품들을 땅에 가깝게 낮게 배치하여 흙에서 태어나 흙으로 돌아가는 재료의 순환과 작품의 메시지를 이미지화하고자 했다.



HONG GEUNYOUNG  
홍근영 b.1984



**동반자**  
2023 | 가변 설치  
흑토, 백조형토, 블랙미운틴  
산화소성 1250°C, 손성형

홍근영 작가에게 작업은 감정적 표출구이자 정도를 만지는 행위를 통한 치유와 위로의 수단이다. 사회의 구성원이자 한 여성으로서 공동체의 행위 규준에 발맞춰 살아야만 하는 작가의 경험과 느린 감정에 기초한 작품들은 자서적으로 입체표현과 때로는 기도 행위와 같은 종교적 함의가 담긴 설치 작품의 형식을 취하고 있다. 리얼리티 사적인 경험과 사색이 바탕이 된 이 도자 조각들은 관람객과 공유되는 과정에서 개인의 역사와 기억을 소환하고 어떤 이에게는 공감을 또 어떤 이에게는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동반자>는 여가를 맞은 여성들로 이루어진 여러 점의 군상과 여인상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작가가 결혼과 출산, 양육을 경험하며 느낀 가정과 사회에서의 여성의 역할, 협력과 연대의 중요성과 가치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다. 제각기 다른 여러 점토로 제작한 군상들은 면도를 포함하는 흙의 생명력을 모성에 연결 지어 여성의 몸을 통해 대대손손 이어지는 인류, 한 방향을 바라보며 서로를 돌리며 앞으로 나아가는 어머니들을 표현하고 있다. 두 얼굴을 이고 진 비스듬한 땅에 우뚝 선 여인상은 어머니들을 돌보는 존재, 인류가 우리러보는 성스러운 '대지의 여신'을 형상화하고 있다.



KOH WOJUNG  
고우정 b.1984



**나의 기도, 너를 위한 기도**  
2022-2024 | 가변설치 | 조형토, 안료, 수금, 조화 | 산화소성 1254°C, 손성형

고우정은 여러 문화권에서 거주하며 세계 사람들과의 교류한 경험을 통한 사유와 위로의 수단이다. 인식하는 데 큰 도움을 주었을 뿐더러 새로운 예술적 시도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한다. 세계 다양한 장소에서 작업하고 전시에 참여하여 끊임없이 세계 여러 문화와 공동체를 탐색하고 소통을 이어간다. 작가는 그 과정에서 느낀 복합적인 감정과 정체성을 주제로 구상과 추상을 넘나드는 입체조형과 과감한 색채표현, 다매체 사용을 통해 자신의 자전적 이야기를 풀어낸다. 작품의 구성점을 이루는 대형 항아리 형태와 조형물들은 한국 전통 옹기 제작 기법으로 만드는데 변하지 않는 작품의 근간이 한국의 전통과 문화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나의 기도, 너를 위한 기도>는 작가의 자화상이자 인류가 구구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문화와 공동체에 바치는 헌사이기도 하다. 여러 색으로 표현된 두상, 꽃을 든 손, 문자가 쓰인 항아리 등 작품의 형태와 표현방식은 작가 외부와 소통하고자 하는 열망과 작업 당시의 즉흥적인 심리상태를 반영하고 있다. 작품의 사용된 다채로운 색채는 작가가 영감을 받은 세계 여러 문화를 상징하며 그 문화들이 서로 교류하며 발전했음을 나타낸다. 작품에 사용된 꽃은 다양한 문화의 가치를 존중하고 전 세계인의 화합의 장인 올림픽을 축하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

